

전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600억... 3년 연속 '전국 최다'

광역기금 304억, 기초기금 80억 청년비전센터 등 12개 사업 추진 청년층 정주 여건 개선 집중 투자 차기 기초기금 평가 대비 시군 협력

전라남도가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1600억 원(광역 304·기초 1천 296)을 배정받아 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해부터 10년간 연 1조 원씩 지원하는 재원이다.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 매년 2500억 원, 인구 감소지역 89개 및 관심 지역 17개 기초자치단체에 7500억 원을 지원한다. 광역기금은 인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정액 배분하며 기초기금은 투자계획 평가 결과, 인구 감소지수 등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전남형 청년마을 간담회. /전남도

내년도 광역기금은 행정안전부가 지역 활성화 펀드에 광역기금 1000억 원을 출자함에 따라 당초 배분액 508억 원 대비 204억 원이 감액된 304억 원을 배정받았다.

기초기금은 총 4개 등급으로 S등급 144억 원, A등급 112억 원, B등급 80억 원, C등급에 64억 원을 배분하며,

최고·최저 등급 간 차이는 지난해 56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확대됐다.

전남지역 인구감소지역 16개 군은 평가결과 A등급 3개소(강진, 곡성, 해남), B등급 8개소(구례, 보성, 장흥, 영광, 함평, 장성, 완도, 신안), C등급 5개소(담양, 고흥, 화순, 영암, 진도)로 지난해보다 40억 원이 증가

한 총 1296억 원을 배정받았다.

전남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중물로 지역 거점별 청년비전센터, 공공 산후조리원, 청년창업지원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전남형 만원주택(1천호) 건립 등 청년층 정주 여건 개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 차기 기초기금 평가에 대비해 시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 컨설팅 지원, 도·시군 공동사업 발굴 등에도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오종우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의 청년 인구 유출은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지방소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며 "기금을 활용해 청년층 정착을 위한 저렴한 주택 및 양육 환경 조성, 양질의 일자리, 생활 기반시설 조성 사업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남도 감염병 관리부문 대통령 표창

경남도는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2023년 감염병관리 컨퍼런스 행사'를 맞아 실시한 중앙단위 평가에서 감염병 예방·관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감염병 관리 부문 대통령 표창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코로나19를 비롯해 감염병 관리 전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경남도는 국가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도 등 공통지표와 법정 감염병 발생에 따른 환자 조기발견 및 전파방지 기여, 정부 감염병 관리 시책 관련 협조 등 전반적인 평가 지표에서 월등한 평가를 받았다.

/경남=장병호 기자 metrobusan1@

사천시 12년 만에 분만 산부인과 개원

사천지역에서 12년 만에 분만 산부인과가 다시 문을 연다.

8일 사천시에 따르면 사천시 벌리동에 소재한 청아여성의원에서 오는 13일부터 분만 산부인과를 본격 운영한다. 이번에 운영하는 분만산부인과는 경남도가 분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한 곳으로 경남도와 사천시의 예산이 투입된다. 경남도는 사천시 동지역은 물론 남해군, 하동군 등 인근 의료취약지의 수요를 감안해 분만 산부인과 운영 경험이 있는 청아산부인과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한 것이다. /사천(경남)=장병호 기자

양산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양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공공임대형 신규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산시는 지난해 10월 중소기업벤처부에 2024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수요 조사를 제출했고, 같은해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5개월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후 사업을 신청했으며 지난 5월 건립 타당성 적합 선정을 받았다.

/양산(경남)=장병호 기자

완도군 수산가공 상품美 수출길 올라

해조 비빔면과 크림파스타 등 완도산 수산 가공 히트상품들이 미국 수출길에 오른다.

완도군은 8일 부산국제수산물엑스포에서 열린 '수산가공 히트상품 개발비 지원사업' 최종 평가회 이후 40만 달러 상당의 미국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회에는 완도바다식품의 해조 비빔면과 해조 크림파스타, 완도담양어조합의 전복 꼬치, ㈜제이에스코리아의 순살 크림 전복 등의 제품 개발 실적과 매출 증대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완도(전남)=양수영 기자

산청군, 공공비축 가루쌀 506톤 매입 "밀가루 대체·쌀 적정 생산 유도 기대"

최저 수분기준 폐지·혼입률 3% 매입가격 10월~12월 산지쌀값 평균

경남 산청군은 8일 신안면을 시작으로 '2023년산 공공비축 가루쌀' 매입에 들어갔다.

가루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에 따른 쌀 수급균형 달성과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조치로 올해 처음 매입을 시행하며, 올해 산청군의 가루쌀 예상매입량은 약 506t으로 도내 최대 매입량이다.

산청군은 가루쌀의 검사규격을 품종 특성과 생산 후 공공비축매입검사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등급 기준을 1개 등급씩 완화했다.

수분은 수분함량 기준 최고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최저 수분기준을 폐지했으며 타품종 혼입률은 최고한도 3%로 설정했으며, 매입가격은 10~12월 수확기 산지쌀값의 평균으로



이승화 산청군수가 공공비축미 가루쌀 매입 현장에 방문했다. /산청군

정해진다.

매입 직후 40kg 기준 포대당 3만원의 중간정산금을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12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올해 첫 시행된 공공비축가루쌀매입을 통해 수입 밀가루를 대체하고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나주시-日 구라요시시, 자매결연 30주년

최대 '배' 주산지... 협력 강화 약속

한국과 일본의 최대 '배' 주산지로서 지난 1993년 인연을 맺은 양국 두 도시가 자매결연 체결 30주년을 맞아 농업·경제·교육·문화·인적 분야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6일 일본 돗토리현 구라요시시(시장 히로타 카즈야스)에서 '나주시-구라요시시 자매결연 3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구라요시 시(市)는 일본 돗토리현 중부지역의 중심도시로 일본 최대 배, 수박, 멜론 주산지이다.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유서 깊은 역사·문화 자원이 있어 '작은 교토'라고도 불린다. 국내 최대 배 주산지이자 조선시대 '작은 한양' (소경)으로 불릴 정도로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나주시와 유사한 점이 많다.

양 도시는 지난 1993년 7월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농업, 교육(청소년 홈스테이) 등 다방면에서 교류·협력 관계를 30년째 이어오고 있다.

구라요시시의 공식초청에 따라 5



윤병태 나주시장(오른쪽 두번째)과 히로타 카즈야스 구라요시시장(왼쪽)이 자매결연 체결 30주년을 기념해 지난 6일 미래지향적인 교류·협력 내용을 담은 '자매결연 30주년 기념 선언문'에 공동 서명했다. /나주시

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기념식식 양도시간 미래지향적인 교류·협력 내용을 담은 '자매결연 30주년 기념 선언문'에 히로타 카즈야스 시장과 공동 서명했다.

윤병태 시장은 "1993년 자매결연 체결 이후 스포츠, 학생 홈스테이, 문화·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다"며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대면 교류가 이뤄지지 못했지만 더욱더 폭넓은 교류가 재개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전남)=양수영 기자

울산화폐박람회, 9개국 50개사 참여

테마전시관·강연·특별 옥션 준비

울산시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유에코(UECO)에서 울산비철 금속기업과 국내외 화폐유통 기업 등이 참가하는 '2023 울산화폐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화폐여행 떠나보자, 골쟁도시 울산으로!'라는 주제로 올해 2회를 맞는 울산화폐박람회는 지난해보다 국내외 화폐 유통 기업의 참여 수가 늘어 9개국 50개사가 참여한다. 이 가운데 해외에서 참여하는 업체는 무려 11곳에 달한다.

이번 행사에는 4개의 화폐 테마전시관과 초청 강연, 특별 옥션(Auctio

n) 등의 부대 행사 및 다양한 특별 행사들이 준비돼 있다. 4개의 화폐 테마전시관은 올림픽 특별관, 대한민국 화폐 특별관, 스페셜 기프트관, 세계 지폐 특별관으로 구성됐다.

울산화폐박람회 개최 기념 특별 옥션은 오는 1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전에 접수된 390여 점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부대 행사로는 화폐를 주제로 한 '화폐의 비밀(오순환 교수)' 등의 강연이 진행된다.

참관객들을 위한 현장 특별 행사로는 '황금공을 찾아라' 등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울산=이도식 기자

경북도, 서울서 '사과 홍보행사' 개최

명품관·이야기관·데일리관 등 운영

경북도가 서울, 수도권 등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6~8일 3일간 서울 시청 광장에서 '2023 경북사과 홍보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18번째인 이 행사는 '경북 꼭지사과 및 잼 볼레?'라는 주제로 4년 만에 서울 시민들을 찾았다.

행사는 경북도와 사과주산지 14개 시군협의회가 주최하고 대구경북농업협회가 주관했다. 특히 행사 분위기를 고조와 경북 사과 홍보 효과의 극

대화를 위해 행사 둘째 날인 7일 오후 2시에 개막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서울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사과주산지 시장 군수, 출향인사, 사과 농가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도는 행사를 위해 사과 주산지 14개 시군 지역의 대표 품종을 전시한 '경북 사과 명품관', 사과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과 이야기관', 경북 과수 통합 브랜드 홍보를 위한 '데일리관'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했다. /경북=장병우 기자 ycyw57@